

융복합 무대기술 매칭지원

- 일정 및 장소 : 9.28.(금), 아르코미술관 세미나실
- 심의위원(가나다순) : 김석국, 박진완, 손혜리, 신성환, 어경준

2017년도 융복합 무대기술 매칭지원 주관처 공모 사업에 6개 단체가 지원하였으며 이 중 최고 평균점을 받은 한 개 단체가 선정되었다.

본 심의 중 토론에서 본 사업은 사업 기간이 길지 않은 관계로, 선정될 주관단체는 지원단체에게 관련 무대기술을 구성하고, 진행해주는 대행단체 성격이어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또한 공연 활동보다는 창작과정을 지원하는 성격으로 진행하는 것이 실효성이 클 것이라는 의견이 다수였다. 이에 따라 주어진 심의기준인 사업이해도, 사업구성의 충실도, 사업능력을 평가하는 한편, 지원신청서 중 지원단체들의 무대기술 요구를 수렴하여 진행할 수 있는 기술 중립성, 예산 안배의 적절성을 집중적으로 평가하였다. 이와 함께 짧은 사업기간, 제한된 예산으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기 어렵다는 점도 본 사업의 주관처를 선정하는 데 고려 대상이었다.

지원단체 대부분이 공연기획단체이거나, 제작팀과 연계된 컨소시엄으로 구성되었다. 그중 한 단체는 그 자체로 지원대상 성격이 강해 본 사업에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았다. 또다른 단체는 특정기술에 특화돼 있고, 그 기술 전문성을 입증하고 있으나, 다양한 기술을 수렴해야 하는 본 사업의 특성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심의를 마친 후 본 사업의 방향과 공연 지원 방식에 대한 위원들 간의 의견 개진이 있었다. 여기에 그 의견들을 정리해 둔다.

우선 창작에 소요되는 기간이 수년에 이르는 긴 기간을 소요함에도 불구하고 행정 상 연단위로 지원이 나눌 수밖에 없는 사업의 특성, 또한 중복 지원할 수 없는 특성 때문에 단기적인 지원에 그치는 지원 시스템의 한계가 언급되었다. 이에 따라 공연활동 지원으로 대변되는 기존의 결과 지원 방식보다, 혹은 그에 더해, 과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특히, 무대기술관련 지원의 경우 다른 분야에 비해 인프라(인력, 관련 업체, 연계된 업무 체계 등)가 부족하여 외국의 경우보다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거나

심지어 한 두 번의 지원 사업으로 효과를 발휘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좀 더 장기적인 지원 방법이 필요하며, 더욱이 현장의 공연기술 관련 인프라를 구성할 수 있는 방식의 인프라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공연예술이 한국 사회의 정신을 대변하고 그에 따라 건강한 사회를 형성하는데 촉매가 되는 공공재가 되도록, 예술 창작의 기반이 잘 형성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지원사업의 집행을 기대한다.

심의위원 일동